

# “옥정호 봄꽃 축제 보러오세요”

### 제2회 꽃걸음 빛바람 축제... 오늘부터 6일까지 요산공원 일대

“노오란 갖꽃들의 향연~,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에 놀러오세요.”  
 임실군이 노오란 갖꽃들로 뒤덮인 옥정호 요산공원 일대에서 제2회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를 연다.  
 운안면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환상의 섬 옥정호 붕어섬과 물안개길로 유명한 요산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득한 봄꽃 축제를 연다.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아름다운 포토존과 수물민들의 애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 전시되고, 임실필봉국을 비롯해 청소년댄스경연대회, 통기타경연대회, 옥정호꽃빛가요

제, 자전거체합 등 알차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또한 운안면의 대표음식인 붕어매운탕과 붕어 튀김 등 다양한 향토 먹거리가 관광객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옥정호 요산공원은 지난 2009년부터 9년간 70여명의 사업비를 들여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을 조성해 평상시에도 수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전주근교에 위치하고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갖꽃을 비롯한 유채꽃을 3만여평의 광활한 대지에 심어 현재 황금물결 장

관을 이루고 있다.  
 이번 축제를 추진한 권호철 지역발전협의회장은 “운안의 상징적 관광명소인 옥정호 드라이브코스와 붕어섬 그리고 국사봉을 연계한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광덕 운안면장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봄맞이 상춘객들의 인기를 끌 것”이라며 “축제 기간중 다양한 체험 및 문화를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고추지주대 지원 나서

### 10일까지 읍면 사무소 접수... 50%범위 내

순창군이 고추대 지원사업을 통해 고추재배 농가들의 영농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고추 지주대는 고추모가 자랄 때 쓰러짐을 방지하고 잘 자랄 수 있게 도와 줘 고추 수확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추장 등 장류제품에 특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순창지역 특성을 감안한 사업으로 고추 재배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 순창지역 고추재배 규모는 240ha로 타지역에 비해 많은 양을 차

지한다. 그만큼 농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군은 그동안 지주대가 2년이 지나면 내구성이 떨어져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는 내구년한 5년 이상의 견고한 지주대 지원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6억2,000여만원이 투자된다.  
 군비지원은 50%범위다. 지원기준은 1ha(약 300평)당 98만원의 50%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고추재배 희망농가는 오는 10일까지 거주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품산에 사는 권모(61)씨는 “고추값이 좋아 그래도 농촌에서는 고추농사가 인기 있는 사업이다”면서 “고추농사에서 꼭 필요한 고추대 지원사업까지 세심하게 지원해줘 마음이 든든하다”고 마음을 표했다.  
 군 관계자는 “순창은 고추장이라는 특산품으로 유명해서 원재료인 고추농사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업이 공평하게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추진에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고추지주대 지원사업 외에도 일예특작용 비가림하우스 3.2ha에 3억2,000만원을 비롯 소득작목(가지) 지원사업, 고부기(기) 작목인 느타리버섯 지원사업 등 원예특작 사업으로 지역 농가들의 소득창출에 노력해 간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순창서 진행

### 7일부터 16일까지

제53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겸 제26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파견 평가전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순창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테니스협회(회장 박용운)주최하고 전라북도테니스협회(회장 정희균)주관하는 대회로 순창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 22면과 제일고경기장 8면에서 진행된다.  
 개인단식, 개인복식 경기로 진행되며 전국에 중·고등학교 남·여 450여명과 지도자, 임원, 심판 등 60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경기방식은 단식 3세트매치(6:6 타이브레이크), 복식은 3세트매치(10포인트 매치 타



이브레이크 시스템)로 점점을 벌인다.  
 순창군은 주니어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제22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가 끝나는 3일부터 연휴기간 동안

안에 경기장 준비를 완료하는 등 선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10세, 12세 부문은 7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2018 꿈꾸는 마을 학교' 씨앗반 수료식을 열었다.

# 남원 꿈꾸는 마을 학교 수료식

### 씨앗단계 마을 활동가 양성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일~3일 양일간 운봉읍사무소 2층 교육장과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수강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꿈꾸는 마을 학교' 씨앗반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꿈꾸는 마을 학교는 지난 3월 21일, 22일에 각각 개강식을 갖고 '나, 너 우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하나 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의미 바로 알기,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영역인 사회적경제, 완주와 대구로 떠났던 공동체 선진지 배움여행(협장 겸학), 각자 자기 마을의 공동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세우기와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총 7강 27시간의 교육과정의 긴 여정을 마무리 하였다.  
 꿈꾸는 마을학교 '씨앗반' 과정

은 주민 주도형으로 만들어가는 의지를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입문단계의 강좌이다.  
 2017년에는 남원시내를 중심으로 2개 반 45명을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새롭게 설립된 공동체 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농촌형 강좌(운봉반)와 도심형 강좌(남원반)로 나누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 시켰다.  
 수강생들은 주경야독의 열정으로 77명중에 80%의 수료율 완료하는 열정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공동체사업에 대한 각자의 의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그 역량이 한층 더 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수강생들끼리 협동과 연대의 상징을 표현하는 '희망 네트워크 지도 만들기'를 시작으로, 교육에 대한 소감 나눔으로 '짜깁인터뷰', 센터 실무자들의 '축하 사냥송'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농특산물 생산업체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참가

남원시는 농산물, 식품 및 식품제조 관련 용기(기계)를 전시하는 국내 최대 식품박람회인 '2018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총 10개 부스 남원시관을 운영하여 국내 바이어, 대형유통매장 벤더, 식품 관련 유통업체 및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남원산품과 시식·시음을 통한 홍보행사로 남원 농·특산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는 남원 우수 농·특산물 생산업체 9개 업체가 참여하여 만두, 우동, 면, 차, 김밥과, 묵, 잡채, 장류, 한과, 강정, 조청, 기름 등을 출품하여 국내 거대처 발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남원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및 상담하여 남원 농특산물 생산업체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박람회 참가업체들은 남원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은 물론이고 대형유통매장과 수도권 유명 백화점 납품, 국내 유명 포털 온라인 판매, 직거래장터 참가, 해외 수출 등 다양한 판매 활동으로 매출확대와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순창군, 등산로 대대적 정비

순창군은 상처된 국사봉, 순창을 대모산 등 관내 생활권 및 주요 명산 5개소에 대한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의 안전한 산행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등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산행 및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권 중심의 둘레길 및 등산로 정비에 총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해 노면다듬기, 야자매트설치, 로프설치, 벤치설치 등 총 연장 9km의 등산로를 8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각 등산로마다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